

# 목포어묵, 상품화 성공 가능성에 기대감 UP

### 국내산 연육 활용 어묵 시식 평가 타 제품보다 높은 선호도 지역 수산식품 가공분야에 새로운 수산식품산업으로 육성

목포시가 '목포어묵' 산업 육성을 주력 산업으로 설정하고 상품화 방안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전략' 사업이 선정된 이후 목포의 특성에 맞는 어묵개발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HACCP시설을 갖춘 어묵 제조 공장을 구축하고 특화 어묵 개발과 브랜드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목포 어묵의 전통성을 살리고 목포 어묵만의 특색을 갖춘 어묵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묵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목포어묵 세계화 사업'을 위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미활용 어류(뽕치, 갯지 등)를 활용한 어묵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기존의 수입산 연육으로 생산되고 있는 타지역의 어묵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 업체들과 함께 고품질 어묵제품을 개발하고 유명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한 준비 또한 진행하고 기업인과 어업인의 네트

워크를 형성해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개발한 어묵에 대한 시식회도 진행했다.

목포어묵의 시장성 등 현재 유통되고 있는 타지역 2개 제품과 비교를 통한 경쟁력 테스트를 위해 2023년 유달산 봄 축제(4.8~4.9)와 2023년 서울 국제수산식품 전시회(4.27~4.29)에서 2차례 블라인드 어묵 시식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목포 유달산 봄축제에서는 45.2%(타지역 제품 32.7%, 22.1%), 서울 국제 수산식품전시회는 52.5%(타지역 제품 25%, 22.5%)로 지역 및 수도권 소비자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우리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제품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그동안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방안 등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묵묵하게 어묵제품 개발에 전념함으로써 긍정적인 결실이 이번 2차례의 어묵 시식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식회에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자체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보다 더 완성도 있는 어묵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어묵 세계화사업은 5월에 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4년 상반기 대양산단 내에 HACCP시설을 갖춘 어묵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어묵공장이 완공되면, 국내산 연육반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어묵공장 내 어묵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임주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묵제품에 대한 개발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과거 어묵의 전통성을 다시 세워 지역의 새로운 수산식품산업의 한 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묵을 통해 목포시가 수산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게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광군노조, 상습 악성 민원인 처벌 청원서 전달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범기, 이하 영광노조)은 9일 영광경찰서를 방문하여 '상습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이 청원서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영광군 공직자 폭행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사건 가해자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영광군청 공직자 6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영광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수시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해당 폭행 사건 역시 단순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로 공직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영광노에서는 지난 4월 27일(목)부터 10일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습 악성 민원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조합원 약 93%가 서명에 동참하였다.

영광노 조범기 위원장은 "민선8기 각종만 준수와 영광군 공무원들은 군민들의 복지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공직자로서의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평가 'S등급' 달성

#### 안전조치 강화, 관련 교육 실시

함평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

한 정량지표와 5개 핵심·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 등이다.

군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했다.

특히,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암군 도포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실시

#### 22명 면자율방재단원 '가로경관 정비사업'

영암군 도포면이 지난 6일부터 4일간, 교통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로경관 정비사업으로 도로변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사업을 주관한 도포면자율방재단(단장 최종욱) 22명 단원들은, 10개 조로 나뉘어 도포면 주요도로와 마을진입로 등 12개 구간 28km를 맡맡하게 단정했다.

단원들은 작업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수칙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현장에 투입돼 풀베기와 함께 도로 양옆에 있는 물 빠짐 도랑의 잡목을 제거했다. 아울러 쓰레기나 낙엽 등 각종 부산물을 함께 처리해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힘썼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콩 계약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신안군은 콩 재배농가와 유통·가공업체간 연계로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콩 계약재배 농가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콩 계약재배 면적은 192ha로 작년 63ha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며 쌀은 매년 가격 변동이

큰 반면 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또한, 농가들이 벼를 재배 할 때 보다 1.5배 이상의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판단된다.

군에서는 지난 4월 콩 계약재배 농가가 우수한 품질의 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음면 순화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비 3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우량종자를 11톤 공급했다.

신안=이택주기자



### 무안군, SNS 인플루언서 초청 홍보여행 진행

무안군은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SNS 인플루언서 10명과 주요 관광지 홍보여행(렙투어)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첫날은 뫼타이 미술관, 회산백련지, 무안낙지공원의 노을길 야영장을, 둘째 날은 무안황토갯벌랜드, 뫼타이 치유의 숲, 초의선사탄생지 등이 포함된 코스를 탐방했다.

그간 매년 취소되었던 축제들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관광지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안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5월 20일에 열리는 초의선사탄생문화제를 시작으로 무안황토갯벌축제(6월 9일~11일), 무안연꽃축제(7월 20일~23일)를 사전 홍보하기 위해 축제 관광지를 방문해 갖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